

새로운 시각과 인식 정립의 ‘메가아시아’ 담론

신범식·최경희 엮음,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진인진, 2023)을 읽고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책의 첫 화두는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되었다”로부터 출발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큰 생각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메가아시아’라는 단어에서부터 큰 궁금증을 자아낸다. ‘메가아시아’는 뭘 의미하며, 어떻게 정의되나? 학술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등 많은 질의와 함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대륙과 메가아시아』, 『해양과 메가아시아』, 『메가아시아 연구입문: 역사, 시각, 방법』 등 메가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물을 축적해 놓은 상태다. 이번 연구총서 『메가아시아의 형성과 동학』은 제목에서 보듯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연구 함의를 담고 있다. ‘메가아시아’란 개념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정립한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읽은 후 독후감 쓰듯 느낀 바를 개인적 소견을 담아 몇 자 적어 본다.

참여한 집필진들은 총 11명이며, 각자 전문가다운 개성 있는 문체를 구사해 흥미로우며 나름 의미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씨줄과 날줄을 상호 엮어 하나로 매듭짓듯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체계를 잡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한때 폄하했던 김용의 무협소설 ‘영웅문’처럼 계속 손에 들고 통독하게 만든다.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한 한편의 장편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도 든다. 또 하나, 필자는 강의 시작 초반에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돌아가는 지구본'을 들고 간다. 지구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지구를 한손에 들고 돌려 봄으로써 큰 인식과 품을 가져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구사회와 국제질서 재편을 이해하는 데 한껏 도움을 준다. 지구 속에서, 지구본에서 바라본 지도를 통해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도가 중요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보다 큰 틀에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 새롭게 틀을 정하고, 새로이 접근하고 새로운 해석을 담아 내는 것은 학문적으로 큰 함의를 담고 있다. 지도와 인식의 확대, 도전적 탐구 자세가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연구물이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아시아의 주체화', '아시아의 주류화', '아시아의 신유형적 지역화' 등이다. 아시아를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체적으로 아시아를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미 저자들 간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함께 나눈 모습이 스며들어 있다. '메가아시아'를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하고 있다. 메가아시아는 "아시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regions)이 신대륙주의나 신해양주의와 같은 지구적 및 지역적 동학을 통하여 상호 연결됨으로써 구성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일단 가장 근간이 된 궁금증이 해소된다. 메가아시아는 "네트워크화된 거대한 아시아"를 의미하며, 아시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기존 아시아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연구 공간 범주, 지역 간 접근 또는 지역적 연결성에 대한 사고,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요구 등을 내세운 부문도 주목을 끈다.

본 연구는 '1부: 메가아시아 인식과 전략', '2부: 메가아시아의 다중 동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와 연계된 주변 강대국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있다. 2부에서는 메가아시아를 형성하는 다중 동학으로 가치시슬, 이슬람금융, 북극물류, 한류, 아세안의 간지역주의의 실천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 도입(부상하는 메가아시아의 이해(신범식)) 부문에서 밝히고 있듯 이 연구의 배경은 "탈냉전 이후 지구질서의 변동 가운데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해 나가는 질적인 변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

고 분석할 필요가 커 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첫째, 아시아라는 용어의 기원과 전화 과정을 개념사적으로 검토하여 아시아 개념이 지니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함의를 밝히고 있으며, 둘째, 21세기 부상하는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서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셋째, 지역으로서 메가아시아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전에 탐구했던 분석 단위와 다른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사고의 틀 확대이자, 도전적 연구라고 평가된다. 아시아를 메가 지역으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아시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틀로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 아시아의 미래 변화와 관련해 아시아 저변에 나타나는 변화와 연결성의 주목, 지역주의적 동력에 대한 이해, 강대국 전략과 지역형성을 위한 제도적 각축이 가져오는 한계, 간지역주의 및 초지역주의 협력 등 거대동력(mega-trend)의 형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어 간다.

목차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부는 2장~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의 메가아시아 인식과 전략들 다루고 있다. 역사적 연원을 토대로 국제적 위상과 국력 변화, 국제환경에의 조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국가별로 메가아시아 인식과 전략에 있어 특유성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장[오래된 미래: 미중 냉전과 인도-태평양의 형성(김일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정학적 단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언급하듯 20세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큰 틀에서 조망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20세기 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충돌로 보는 지정학 분석 틀과 시각 속에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냉전을 통해 인도-태평양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저자의 핵심적 주장은 “원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았던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은 2차 세계대전부터 베트남 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제정치적 실체로 거듭났으며, 그 과정의 핵심에는 공

산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양의 해적들’, ‘초원의 산적들’, ‘인도-태평양의 거대한 초승달’ 구축 작업 등의 흥미로운 용어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과 1950년대 초반대 공산화의 도미노 인식, 전통의 반중국 정서 + 반공주의 + 민족주의 결합체로서의 동남아시아 모습,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1962년 중인전쟁을 계기로 완성된 대중 봉쇄, 그리고 이후 전개된 미중관계 복원과 현재의 미중 전략 경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과 전개를 통해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세계를 보여준다. 미국 중심의 인식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새로이 등장한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갔는지 서사적 문체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깊은 기저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장[중국의 일대일로가 메가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창주)]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전략과 메가아시아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의 입체적 개념을 세계화, 연계성, 글로벌 가치사슬, 메가아시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일대일로의 현황을 일대일로 범위와 국가 수, 국유기업의 일대일로 해외진출 및 지원제도, 국제개발원조의 확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메가아시아에 미치는 공부정적 영향과 역할을 설명하고, 그 토대 위에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형성한 새로운 구조 속에서 중국이 뉴노멀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제안한 구상이자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일대일로는 ‘개발 중심의 세계화’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국제질서 속에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 미중 전략경쟁시기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는 것, 중국 주도의 세계화 흐름을 창출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그랜드 플랜(grand plan)으로서 세계화, 연계성,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는 지역협력 모델로서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의 개념과 중국의 국가이익 추구 모델로서의 전략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물리적 연계성에 형성에 동력을 발생시키며 메가아시아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국가이익 추구 모

델을 포함하고 있어 메가아시아의 흐름을 대변하긴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메가아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저자는 일대일로 내 전략적 섹채를 최소화하고, 메가아시아 형성을 위한 개방된 거버넌스를 다른 국가들과 공동 구축해 참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중국이 지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추이 관찰한 결과가 어떻게 궁금하다.

4장[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성원용)]은 아시아와 연계된 유라시아 공간에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가 과연 현실 속에 실천되고 있는지? 하는 질의 속에 구체적인 현황과 전개 상황을 토대로 분석,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푸틴시기 신동방정책은 대서양에서 아태(동북아)지역으로 문명(세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세계관과 국제정세분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정학적·지전략적 국익을 실현하려는 실용주의적 정책 지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또한 대유라시아 건설도 전략산업축, 금융통화축, 교통물류축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주도할 충분한 역량과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교통물류축의 경우 향후 유라시아 지역통합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메가아시아 미래와 관련해 주목해 볼 사안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이에 따른 여러 파급영향과 메가아시아에의 함의, 그리고 금년 3월 새롭게 성안한 대외정책개념 문서에 담긴 내용도 첨언되어 분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외정책, 국가전략 속에는 집권 4기 푸틴 대통령의 국제질서관이 투영되어 있으며 러시아 나름대로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5장[일본 아시아전략의 진화와 인도-태평양: 일본의 지역주의 구상과 메가아시아(최경준)]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19세기말 탈아입구와 홍아론, 20세기 초 대동아공영권, 전후 냉전과 탈냉전 질서 속 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오늘날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주변국에서 제국화한 일본은 ‘아시아의 지역화’보다는 ‘지역화 속 아시아’를 모색해 왔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통합된 아시아를 지향하기보다는 확장된 아시아지역 관념으로 아시아의 분열에 일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채롭다. 또한 저자는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국을 지역 구상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메가아시아에 제약을 가할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감되는 부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장인도의 아시아 인식과 전략: 지역 패권국으로서 인도 잃어내기(강성용)은 지역패권국 개념을 통한 인도의 외교노선 근간을 설명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성을 통한 중국 배제 시도에 대해 왜 인도가 적극적이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지역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 적극 참여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협조하고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도의 전략적 입장과 전개 상황을 명쾌히 정리하고 있다. 인도의 역할과 독특성에 주목하면서, 중인관계의 향배도 다루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해 남아시아 역내 패권에 대한 위협에 강경 대응하는 동시에 기반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가능성의 면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일대일로 포럼에 불참했지만, SCO, AIIB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QUAD, IPEF 참여해 인도양에서의 연결 강화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가 남아시아 지역 패권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변국 외교 풀기(대중 견제, 대미 협력, 대러시아 협력도 하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발휘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인도가 펼친 비동맹외교의 속편을 보는 듯하다. 불확실성 속에 (외교) 방향은 없고 서두르는 것은 분명하다는 해석도 주목을 끈다. 인도 주도의 연결망을 남아시아 내에 구축하고 이를 아시아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메가아시아 미래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부에서 저자들은 가치사슬(7장), 이슬람금융(8장), 북극물류(9장), 한류(10장), 아세안의 간지역주의(11장)를 중심으로 ‘메가아시아의 다중 동학’ 문제에 집중

한다.

7장[가치사슬이 연결하는 메가아시아(이준구)]은 아시아가 가진 지역적 연결을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지역화의 관련성, 메가아시아의 저변을 형성하는 지역적 연결성의 패턴과 그 변화를 살펴 보고 있다. 저자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자본이나 노동력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 지식, 정보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국가, 지역, 기업의 경계를 넘어 연결시키는 도관(channel)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사슬은 '네트워크화된 지역(networked region)'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반이자 기제의 하나인 것이다. 이 연구는 관계적 시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역동성에서 보듯 지역적 연결 구조는 메가아시아 저변을 지속적으로 변모시키며 공평한 경기장을 가져오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갈등과 불평등 차원들에도 주목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8장[이슬람금융으로 연결되는 메가아시아(이충열)]은 이슬람 금융의 활용 및 발전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인들 간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금융 발전과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제시한 후 이슬람금융의 발전과 아시아 소지역 특히 중동지역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간 연계성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아시아 소지역 연구에 새로운 주제와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라 여겨진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교리를 준수하는 금융 행위로 이자가 없고 하람(haram)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새롭다. 또한 수쿱(Sukuk), 샤리아(Shariah) 등의 용어도 흥미로우며, 말미에 검토한 이슬람금융의 발전과 연계된 4가지 가능성의 탐구도 관심을 끈다. 이슬람금융이 이슬람국가들 간의 국제금융거래 확대, 경제 연관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의 메가아시아와 어떤 연결성을 갖출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지며, 종교와 금융을 매개로 한 또 하나의 지역성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9장[북극물류를 통한 메가아시아로의 공간확장(이성우)]은 제목대로 북극물류를 통한 메가아시아로의 공간 확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북극항로 상용화와 주변 북극물류의 확장에 주목하면서 아시아 북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태동을 강조하고 있다. 물류는 상호작용의 물리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

극항로는 메가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를 연결하는 주요 네트워크이며, 북극항로 중 북동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내륙수운은 정치적 요인만을 제외한다면 아시아 공간의 확장, 메가아시아로의 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물류혁명을 가져올 것인지 국제적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항로의 국제 거버넌스 문제, 환경문제, 항로 리스크 요율 문제, 쇄빙선 운용 한계 등 아직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은 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북부지역에서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수운은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장[메가아시아와 한류(심두보)]은 한류 문화 현상이 지닌 의미를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아시아 지역주의와 연결 지어 한류의 형성과 수용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한류 발생의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한류 현상은 다양한 비판과 동시에 아시아공동체에 이바지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적성의 탈피를 강조하고, 인정투쟁(the struggles of recognition)의 경계, K- 접두사의 만발 등을 경계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한류의 부상은 아시아를 상호참조의 대상이자 협력자로 인식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메가아시아 지역주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11장[메가아시아 형성의 동력으로서 아세안의 간(間)지역주의 실천(최경희)]은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역내뿐만 아니라 메가아시아라는 새로운 지역을 창출하는데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왜? 어떻게? 그러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세안의 간지역주의 실천에 주목하면서 아세안이 아세안 밖의 다른 지역과 지역 대 지역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시아를 ‘거대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간지역주의적 활동은 여러 아시아와 하나의 아시아를 만들어 내는 중층적·다층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SEAN과 SAARC, ECO, GCC의 간지역주의 협력 사례 분석은 메가아시아의 미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메가아시아 동력과 관련해서 간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은 나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아세안(ASEAN)뿐만 아니라 ASEM, APEC 등 여타 지

역 국제기구들에 대한 연계성을 추가로 탐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4년마다 이뤄지는 국제 스포츠행사인 아시안게임(Asian Games) 등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글에서 저자는 아세안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메가아시아'의 출현 배경, 개념, 연구의 독특성 등 다시 한 번 본 연구의 특징을 부연하고 있다. 특히 메가아시아가 구성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은 이채롭다. 메가아시아가 '새로운 아시아', '주체화된 아시아', '서로가 동등한 아시아', '공존, 공영의 아시아'로의 변화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지, 그저 확장된 네트워크에 그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상과 같이 2부 '메가아시아의 다중 동학'에서 다룬 5개의 주제는 현시점에서 나름 적실성 있는 선별과 시의성 있는 주제라 여겨진다. 여타 연구에서 메가아시아 형성의 동력으로 ① 아시아들의 발전과 지역주의, ② 신대륙주의, ③ 신해양주의, ④ 북극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변수 출현, ⑤ 교통회랑의 구축, ⑥ 간/초지역주의, ⑦ 지구/지역 가치사슬, ⑧ 네트워크론적 사고, ⑨ 개념의 확산 등 9가지가 제시된 바 있는데(신범식 2023)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적실성 있는 동력 요소를 풀어 내길 기대해 본다.

한편, '메가아시아'의 개념에 문화 다양성의 토대위에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아시아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전략적 실천이 담겨 있다는 주장도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해소해야 할 논쟁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연구 접근에 있어 아시아만의 강조를 통한 또 다른 영역, 지역 나누기에 일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시아인들 스스로 바라보는 아시아, 다양성 존중은 옳고 좋으나,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용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문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자세를 갖춰 보는 것도 소중해 보인다.

메가아시아 출현 배경이 탈냉전 이후 지구화, 초국가적 이동, 아시아의 부상이라면,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저자들이 파악하듯 '메가아시아' 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부상, 중국의 부상, 미·중 전략경쟁 고조는 아시아의 연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일방주의에 기초한 아시아의

질서 재편은 서구의 전략 탈피와 또 다른 공백 메우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열과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 보편의 공영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그 틀과 비전은 무엇인가? 물론 긍정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어렵고 실현되기 힘든 상황도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메가아시아 형성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 나가야 하는지보다 더 탐구해 볼 사안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재는 메가아시아가 지속될 광범위한 네트워크 현상인지, 영토화된 이념적 경제지대의 출현으로 재편될지 등 확장과 좌초의 중대한 기로에서 있는 시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는 지구적 세력 구도를 이해하는 틀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미·일 인도-태평양전략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일대일로의 성패 여부와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의 향배, 중·러·인 3각 관계 등의 향배를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 국제질서 재편이 어떻게 이뤄지고, 재편 추이와 성격에 따라 메가아시아 연계구조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새롭게 평가될 부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유라시아 전략공간의 질서 재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아시아와 메가아시아의 연계구조는 물 건너간 구조인가? 필자 생각은 그간의 쌓여지고 축적된 네트워크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장기적 측면 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내지 종결될 경우 다시 부활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북아시아’ 개념 사용에 대해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과연 학술적으로라도 이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추후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었으면 한다. 추가했으면 하는 연구 과제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메가아시아’와 한국의 지역전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메가아시아적 지역외교를 통한 한국의 해륙복합국가 건설을 향한 도전은 무망한가?, 한국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메가아시아의 미래 비전과 모습은 무엇인가? 등등. 답을 찾기가 쉬운 듯 보이면서도 매우 어렵다. 학구적 탐험이기도 하고, 전략 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며 새로이 정진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개진될 것이고 견해 차이도 노정될 것이다.

요즘 국제질서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 신냉전(new cold war),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 뉴노멀(new normal), 세력전이와 복합상호의존의 혼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초불확실성을 표출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복합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 이 책에서 언급된 '메가아시아', 신해양주의, 신대륙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AIB, 동아시아공동체, QUAD, Chip4 Alliance, IPEF, IRA, 글로벌 가치사슬, 북극항로, 이슬람금융, 한류, 신동방정책, 대유라시아주의, EAEU, BRICS, SCO, ASEM, 아세안, 간지역주의, SAASC, ECO, GCC, BRICS, 지역협력체 등 수많은 용어에 주목하면서 이에 담긴 국제정치적 함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중요성은 연구결과물 속에 녹아 있는 국제정치적 지혜와 혜안이 아닐까 싶다. 현재 세계는 각 국가의 국제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조용하는 전략 구사 및 이의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국제질서 변화를 읽는 능력, 올바른 인식과 슬기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메가아시아'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교훈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끼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집필진들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추후 더 심도 깊고 뜻깊은 후속 작품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필독서로 추천하며 정독(精讀), 통독(通讀)하기를 권한다.